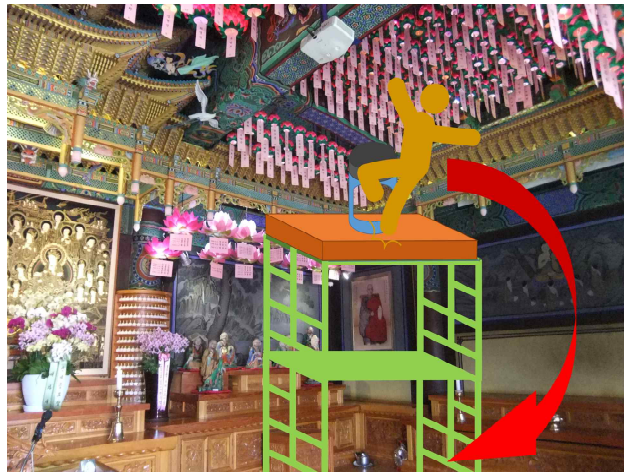


고소작업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

재해개요

2018년 5월 9일(수) 재해자가 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찰에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대웅전 천장 연등(높이: 약 5m)에 꼬리표 부착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2018년 5월 13일(일) 사망함.

재해발생 상황도



* 추정상황도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

재해발생 원인

- 이동식 비계 설치방법 불량
 - 비계의 최상부에 떨어짐을 예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,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용도의 의자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하다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.
-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감독 미흡
 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에 개인보호구(안전모 등)를 지급하지 않고, 작업방법과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.

예방대책

- 안전난간 설치, 작업발판 고정 등 안전한 이동식 비계 설치
 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는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비계의 작업발판은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설치.
- 개인보호구 지급 등 관리감독 철저
 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은 개인보호구(안전모 등)를 지급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상시 감독해야 함. 또한 작업 투입 전 작업방법 및 점검사항 등을 이해하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.